

# 위임의료란 무엇이며 계약의료란 무엇인가?

문국진/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우리사회의 의료형태가 위임의료(委任醫療)이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계약의료(契約醫療)의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따라서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은 위임의료란 무엇이며 계약의료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며는 의료를 행하는 도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위임이란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의료라면 환자는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위임의료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취해온 의료형태가 위임의료였다. 환자는 의료에 관한한 모든 것을 의사에게 위임하고 또 위임 맡은 의사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환자들은 비록 의료에 관한 사항이지만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계약의료라는 새로운 의료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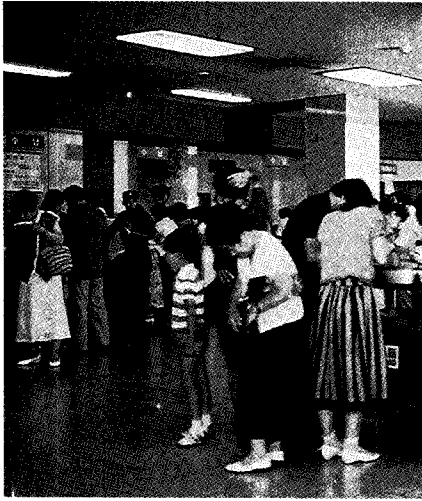
계약의료란 의사와 환자사이에 계약에 입각해서 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위임에서 계약의료로 의료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환자의 탈개인화(脫個人化)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의료도 분업화되기 시작했다. 즉 의료의 분업화란 의료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사라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하던 것이 이제는 각과의 전문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외과에도 정형, 신경, 성형 등 여러 전문의가 탄생 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전문화(細專門化)되어 수외과(手外科), 족외과(足外科) 등과 같은 극히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통한 의사가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문화된 의사는 자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으나 전문을 벗어난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의 전문의가 모여야 모



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의 대형화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렇게 대형화된 병원에서는 환자의 탈개인화현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종합병원에 가면 우선 진찰권을 끊어야 한다. 환자는 자기 병이 정형외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경외과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물어 물어서 찾아가면 진찰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처방내는 의사가 따로 있으며 약은 약국에서 주시는 간호사한테서 맞아야 하고 내일 또 와서 치료하라는 말 이외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치료될 수 있겠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환자는 이렇게 탈개인화된 병원의 대형화에 대해서 불안운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은 불신을 쉽게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의료인들은 의료의 전문화, 병원의 대형화에 대

해 양질의 의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자만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렇듯 발전된 의료는 의사와 환자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적은 일에도 쉽게 불신이 싹트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의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와 권리를 내세우고 이를 주장하게 되어 등장된 것이 계약의료이다.

계약이란 의무와 권리가 따르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간에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 2. 과학의 발달과 사고의 빈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편리하게 되었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과학의 발달이 이렇게 인류사회에 언제나 기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상사 즉, 사고가 야기되어 인명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또 대형화(大形化)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교통수단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교통수단이 전연 없었던 시절에 사람이 걸어 다닐때는 교통사고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자전거가 생겨나면서부터 사람을 치이는 사고가 야기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열차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수명에서 많은 경우에는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가 야기하게 되었고 항공기가 등장되고서부터는 추락으로 수백명이 일시에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

기 시작했다. 그것도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의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페니실린이 없었던 시절에는 페니실린 속크사(死)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많은 질병 특히 세균성 질병은 거의 정복되다 싶어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것과 같은 인명피해가 따르게 되었다.

이렇듯 과학발달의 뒷면에는 사고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는 전연 관계없는 불상사가 따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고가 어느때 자기에게도 닥칠런지 전연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은 결국 모든 것을 위임에서 계약관계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법(法)이란 삼수변(?)에 사라질 거

(去)이다. 즉 물과 같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국민감정만 집약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인권존중이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서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때는 그 결정은 반드시 환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소위 '환자의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의료인은 설명을 하여 환자가 자기의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따라서 계약의료 체제에서의 의료인은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의료시의 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卄

## 생활캠페인

### “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

#### 1. 음식찌꺼기를 대폭 줄입니다.

가지 수와 양 위주인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계기로 삼읍시다.

#### 2. 1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당장은 편리해도 엄청난 자원낭비이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3. 쓰레기를 분리수거합니다.

재생가능한 종이류, 캔, 빈병 등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정화하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한집에서 한등의 불을 끄고 1리터의 수도물을 절약해도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올여름엔 부채로 더위를 식힌 옛선조들을 생각하며 에어컨을 켜지않고 부채와 선풍기로 여름을 이겨봅시다.